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공동체 기관의 역할

송정애*, 박유범**
승실대학교 박사수료, 명지대학교 강사*

The Role of Church Communities in Elderly Welfare in Korea after the COVID-19 Pandemic

Jeong-Aie Song*, Yoo-Beum Park**
Ph.D. Graduate,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Myon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 공동체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 공동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복지 수혜자인 노인들의 삶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단체,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가 되게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써 각 교회의 담임목사와 노인복지 담당목사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어낸 내용의 면접기록지를 1차 자료로 사용하였고, 1년간의 노인복지 사업 결과물을 2차 자료로 사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힘든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자원과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교회공동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 관계망 속에서의 안정감과 만족도도 높음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의의이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노인복지, 공동체 역할, 교회공동체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church communities in elderly welfare in Korea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how church communities can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elderly beneficiaries, enabling them to lead more stable and happy lives. It aims to establish efficient elderly welfare networks involving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churches. The research approach involved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with senior pastors and ministers in charge of elderly welfare at various churches. The data collected from these interviews served as the primary source, supplemented by a one-year assessment of elderly welfare programs as the secondary data for analysis. The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utilizing the role of church communities in elderly welfare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elderly welfare in Korea,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like the COVID-19 pandemic.

Key Words COVID-19, Pandemic, Elderly Welfare, Role of Church Communities, Christian Community

Received 30 Jun 2023, Revised 12 Jul 2023

Accepted 21 Jul 2023

Corresponding Author: Yoo-Beum Park
(Myonji University)

Email: ybpark09@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2023년 1월,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인 9,267,290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 증가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 이상이 될 것이므로 여기에 따른 대응과 준비가 시급하다. 노인들은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민주화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IMF 위기, 세계 금융 위기 등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온 세대이다. 하지만 부모 봉양과 자식 양육에 온 힘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의 요인도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들어선 상황에서 노인 복지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복지에도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었다(김윤권, 2022)[1].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와 정부, 지역사회, 기관, 공동체 등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교회 공동체 기관만의 고유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기관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기관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도, 프로그램의 종류와 효과, 이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 복지 수준 등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각 교회의 담임목사나 노인복지 담당목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내용을 면접기록지로 작성한 것을 1차 자료로 사용하였고, 그 외 교회에서 노인복지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회 공동체 기관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교회 공동체 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기관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 돌봄 서비스, 상호작용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교회 기관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비영리 기관, 교회 등에게 노인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 연구가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우리나라 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시작은 1960년으로 볼 수 있다. 60년대 노인복지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 기반 시설 재건에 집중 할 때라 아주 제한적이어서 당시 노인들은 가족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았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제도나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70년대부터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착수하게 되었다. 80년대 정부가 고령 노인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은 실제적이고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비로소 정부는 90년대에 노인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1995년에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노인센터 홈케어 서비스 및 교통서비스 같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5년 정부는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 개인 및 가족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 비로소 의무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시에 노인복지법을 통과시켜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위한 법적 틀도 마련하였으며 2018년에 정부는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0년 획기적으로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전기 및 가스과 같은 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인 안정망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전반적으로 정부는

재정지원과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노인복지 정책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황지영, 2023)[13].

2.2 공동체로서의 노인복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교회 공동체는 꾸준히 복지서비스 제공을 수행해 왔다. 사회복지 역사는 영국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며 교회 공동체들이 복지 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내부적으로 종교개혁의 진통이 시작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조금씩 약화되었다. 교회 공동체의 노인복지 제공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 체계에도 공백이 생기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 후 국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는 국가의 주된 역할을 보완해 주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노인복지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요구되는데 이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조세 부담은 젊은 세대들에게 심리적,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만들어 노인복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노인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인복지 제공의 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하다. 복지제공의 다양한 기관 중에서도 민간 기관의 역할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꾸준히 역할을 해온 교회 공동체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주로 개교회 구성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재정적 한계와 시설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갈수록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 부담과 시설 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노인복지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마저도 점점 고령화 되면서 노인복지에 헌신하는 구성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느 때보다 노인

복지에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은 안타까운 상황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3.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

3.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팬데믹(pandemic)이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표현이다. 헬라어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감염된다는 뜻이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의 위험도에 가장 높은 6단계 경고를 '팬데믹'(pandemic)이라 한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역사 발전의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으며 21세기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역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동시에 발전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도 보인다. 미디어와 사물인터넷이 보편화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융합으로 사람들의 행동 양식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 형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코로나 이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로점도 예상된다. 반면에 변화를 잘 활용함으로 새로운 엘리트 계급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나 격차 등 문제점이 염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미래 학자들 중에 인류가 대비해야 할 미래의 위기 중에 핵전쟁,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과학기술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위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에 대하여 사람들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발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무분별한 자연 개발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로 인해 환경에 더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동안 인류는 가장 귀중하다는 휴머니즘이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대해왔다. 그러나 자연을 인간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고 생태계를 파괴해 왔으며, 서식지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동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곳도 있었다. 그러

나 코로나19로 인해 인류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지구 생태계는 일부 복원되었으며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지구는 더욱 건강해진 점도 나타났다. 따라서 인류가 다른 종과의 공생을 저버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공유된 것이다. 인류가 휴머니즘을 넘어 삶의 올바른 의미와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했다. 즉 사람의 감성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이 나타나고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이며, 꿈과 이야기를 사고파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9].

코로나19 팬데믹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각종 플랫폼 속 이야기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했으며 여러 종류의 플랫폼은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변화시켰다. 그 결과 디지털 콘텐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었고,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큰 이익을 낸 기업들은 제품의 질, 가격의 합리화, 서비스의 고급화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남보수, 2023)[5].

3.2 팬데믹으로 인한 노인문제 사례

팬데믹 이후 노인 학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장애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도 심화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람들의 접촉도나 격차도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김정숙, 2023)[3]. 경찰 집계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학대 유형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이었고 경제적 학대는 1% 정도였다. 물론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인 노인복지법이 있지만 법이 적용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다[4].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는 법이 제정되었다(김영신, 2023)[2]. 이런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노인학대 예방전화 상담이 31.8%나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신고 내용 중 심리적인 피해가 70% 이상이었다.[8]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소외, 빈곤, 장애 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83세 할머니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들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재판을 받았지만, 할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받아들여졌다. 다른 사례로, 서울 양천구에

70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얼굴을 수차례나 맞았다.

노인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노인학대가 주로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피해 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를 가정의 일로 생각하여 외부에 알려지는 걸 기피하고 혹 알려지더라도 가족이 당할 피해를 염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재판까지 가도 위의 사례처럼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노인학대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유순호, 2023)[6].

또한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도 차별이 심해졌다. 병원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점, 감염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거절당하는 것, 대책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체 장애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노인들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서재호외, 2015)[7].

3.3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의 변화

팬데믹은 노인복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주민 문제(외국인, 탈북자)라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노인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주제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국교육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인구 감소(2023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31개), 지방대의 존폐위기,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인구 급증은 더욱더 심각한 수준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등급판정 받은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는 90여 만 명이다. 노인 중에 현재 치매 환자는 88만 여 명으로 10% 이상이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인복지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요양시설에 이용자들의 외출, 외박의 절제, 계절병의 감소, 가족들 면회 제한으로 업무 효율화, 직원 상하간 불필요한 대화 금지로 업무 집중력 향상과 함께 보호자들도 면회의 부담이 많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 중에서도 소외계층, 빈곤계층, 장애계층에 더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노인복지에서 건강 생활 등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유의미한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또는 의미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져서 진정 노인복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 의미를 느끼게 해 주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팬데믹은 빈부의 격차도 심화시켰지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삶의 의미 부여에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이 있어서 이 격차를 줄이는 노력과 연구가 중요한 시기이다.

4.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의 역할

4.1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이념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존중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신학자 브룬너(Brunner)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형식적 형상과 실질적 형상으로 표현했다. 형식적 형상이란, 이성적 존재로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이를 '사람의 형상의 본질'이라고 했다. 실질적 의미의 형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형상을 의미한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와 함께 인간 상호간의 수평적 관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노인복지의 중심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삶 전체에 대한 존중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더 안락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인격이 존중받고 삶의 의미를 영위할 당위성이 노인복지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외된 빈곤층, 독거노인, 신체적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더욱더 집중함으로써 노인복지 전체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들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간과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노인들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기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살았다.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멀

시받고 궁핍한 사람들을 섬겼다. 교회 공동체가 노인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자세를 기준으로 하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복(公僕)이라는 봉사 자세로 역할을 감당 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 빈곤, 독거, 장애 노인들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교회 공동체의 노인복지는 경제논리나 힘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자일수록 더욱더 관심과 섬김의 대상임을 자각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노인복지에 균형을 이루며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의 노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 국가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2 팬데믹 이후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역할

교회 공동체도 팬데믹 이후 출석율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구성원 전체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도 줄어서 교회 공동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역할도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특성상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서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 왔던 노인복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교회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복지사업을 서로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에 있는 자원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노인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교회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의 한 일원으로서 정부와 기타 지역 단체와 협력하고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 기관들이 노인복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소외,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교회 공동체가 노인복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자원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함

로써 교회 공동체도 자부심을 갖게 하여 지역사회와 정 부기관에게 신뢰를 주며 노인복지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교회 공동체가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 역할 수행이 순조로울 것이다. 재정과 시설이 부족하다면 노인복지의 좋은 성과를 기초로 기부나 후원을 통해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종교 특성상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복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정과 시설은 충분 하지만 시간을 내거나 삶을 함께 나누어 주며 이야기를 공유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단체들도 있다. 이런 단체들과 상호 협력하면 교회 공동체의 장점을 살려서 팬데믹 이후 더욱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노인복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듯이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의 위기가 교회 공동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교회공동체 기관의 역할이 노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 공동체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이러하다. 첫째, 교회공동체 기관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많은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했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은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회공동체 기관은 다양한 사회적 행사, 모임, 그리고 봉사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연결을 촉진해 왔다. 둘째, 교회공동체 기관은 노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팬데믹은 노인들에게 더 큰 건강 위협을 가져왔지만, 교회는 노인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회공동체 기관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식사 제공 등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건

강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교회공동체 기관은 노인들의 인정과 존중을 증진시켜야 한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자원이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귀중하다. 하지만 종종 노인들은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많다. 교회공동체 기관은 노인들을 존중하고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공동체 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회공동체 기관과 함께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교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공동체 기관의 역할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교회공동체 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인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도 안정적인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김윤권(2023.3.22.), “넥스트 뉴노멀 시대 정부 기능별 조직개편”, 정책포럼 1032회, 한국정책지식센터.
- [2] 김영신(2023.5.8),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연합뉴스
- [3] 김정숙(2023), “노인학대 실태 및 위험요인의 변화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 [4] 보건복지부(2022), “2022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 <https://www.mohw.go.kr>
- [5] 남보수(2023. 06. 06), “우리나라 노인인구 1천만시대”, 경북신문, <http://www.kbsm.net/>
- [6] 유순호(2023),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예명대학원 박사논문.
- [7] 서재호,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2015.10), “환경변화 등에 따른 질병관리 조직기능 진단 및 발전방안”, Vol.2016 No.- [2016], 한국조직학회, 연구보고서.

- [8] 김지환(2022.2.10.), “팬데믹 이후 퀘즐랜드 주 노인학대 헬프라인”, 호주한국신문, <https://www.koreanherald.com.au/>
- [9] 월간복지동향,(2023.3.1) “재난 불평등과 건강”, <https://www.peoplepower21.org>
- [10] 왕사나(2022), “사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디자인 연구” 경일대학원 박사논문.
- [11] 이재호(2016), “사회복지 체계 정부조직 기능과 인력 재조정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12] 신영수(2021), 『다시, 가지 않은 길 위에 서다』, 서울: 은빛.
- [13] 황지향(2023), “일본보다 빨라진 초고령사회”, 더팩트. <http://news.tf.co.kr/read/life/2023196.htm>

송 정 애(Song, Jeong-Aei)



- 2011년 4월 26일~현재: 목사(백석)
- 2020년 3월~2022년 8월: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3년 3월~2015년 8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 2014년 7월~2022년 6월: 서울시 관악구의원
- 관심분야: 복지경영, 상담심리, 문화예술
- E-Mail: mara1003@naver.com

박 유 범(Park, Yoo-Beum)



- 2014년 2월~현재: (사)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상임이사/전임교수
- 2020년 3월~현재: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2월: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2월: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관심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부상담, 학교폭력
- E-Mail: ybpark09@naver.com